

깨어진 몸과 마음-10대들의 성



이 영 숙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청소년복지과장

필자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구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이 하루 7,000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약 50%가 15-24세의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임신과 혼외 임신도 증가하고 있어 몇몇 국가들은 청소년의 성문제만을 다루는 특별정부기구를 수립하거나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병원(youth friendly hospital)을 곳곳에 세우고 있다.

최근 뉴스위크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인공임신중절률이 세계 최고로서 일년에 150-200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중 약 반정도가 젊은 미혼여성과 청소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한국의 현실도 자못 심각한 것이다.

10대들의 성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이들의 성관계는 보통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10대 소녀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성관계가 반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많은 성인과의 관계도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10대들의 로맨스는 어른들에 비해 훨씬 수명이 짧으며, 10대의 어린 나이에 성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성경험을 먼 훗날 '중대한 실수'로 후회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10대는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잡지, 영화, TV 그리고 소설 등은 지나치게 성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미디어들이 청소년에게 주는 성의 이미지는 멋지고 로맨틱하고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임신을 경험한 10대 거의 대부분이 아기아빠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성적 일탈이나 비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미국의 경우 10대 미혼모율이 OECD 국가 중 일등을 기록하고 있는데(10명 중 1명) 그 이유는 높은 이혼율로 인해 편모 혹은 편부 가정에서 애정결핍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요즈음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성가치관이 극히 혼란한 상태에 있어 스스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신념이 심히 결여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부모들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사춘기 자녀들과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 요즈음의 성교육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Too little, Too late' 즉 너무 느리고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와 정부, 사회는 10대 들의 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불필요하게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0대의 성에 대해 도덕성만 내세우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교육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콘돔이 필요하면 눈치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콘돔자판기를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든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언젠가 내가 받은 상담전화가 생각난다. 발자마자 엉엉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연인즉 17살이고 임신 5개월인데 병원에서 중절수술을 안 해준다는 것이다.

임신중절 수술비를 벌기 위해 돌아다니느라고 5개월이 지나 버려 더 사태를 악화시킨 경우였다. 문제는 이렇게 안타깝고 가슴아픈 사연이 이 한 소녀의 아픔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 청소년 관련 세미나에서 '아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자'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이제는 진정 우리 아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PEK**